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현실적 구속을 받고 있는 부자유스런 존재

공간적 배경, 시간 순서에 의한 전개.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확립화된 군사문화, 비판의 대상. **반어법**, 강요에 의한 행동. ⇒ 애국가 경청

삼천리 화려 강산의

반어법, 풍자 대상인 조국.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들이

자유로운 존재, 화자와 상반되는 존재, **객관적 상관물**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의성어,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확립화된 군사문화 풍자.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군사독재 치하의 현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유로운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 새들의 자유로운 비상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

깔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군사 문화 풍자.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화자의 소망.

하는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애국가의 끝, 현실에 대한 순응 요구.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현실의 안주.

주저앉는다.

현실에 대한 좌절, 절망

⇒ 현실에서의 이상과 좌절



갈 래 : 자유시, 현실 참여시

성 격 : 상징적, 현실 비판적, 풍자적, 대조적, 추보적

긍정적 시어 : 흰 새떼, 이 세상 밖 어디

부정적 시어 : 우리, 이 세상

주 제 : 획일화된 군사문화에 대한 풍자와 현실에서의 좌절

특 징 : 대조적 상황 제시로 화자의 절망감 강조, 반어법을 통한 획일화된 군사문화 풍자.

해 설

이 시는 그의 대표작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시집의 표제시로, 1980년대 군사 독재 치하에서 폐쇄적이고 암울한 한국 사회를 벗어나고픈 소망과 좌절감을 그려낸, 당시 지식인의 고뇌를 아주 잘 표현해 낸 작품이다. 시의 배경은 영화관으로, 군사 독재 시절에 이 강요된 애국가 경청 의식은 거의 일상화였는데 닫힌 영화관에서의 폐쇄성, 독재 정권의 강요와 강압성을 풍자하고 있다.

화자는 애국가가 나오는 장면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는 철새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열망과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고픈 마음을 잘 드러냈다. 끼룩끼룩, 낄낄, 깔죽대는 철새들의 울음소리에서 현실을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국가가 끝나면서 다시 자리에 앉는 장면은 이 암울하고 폐쇄적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지식인들의 좌절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경건한 의식의 강요됨을 비꼴로서 단순한 좌절과 체념만이 아닌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는 참여시로 볼 수 있다.